

<도화동 갤러리> 삼대의 추억

▣ 연출 및 지도 : 오지나

▣ 출연자 : 조현경, 김성형, 김명순, 김태은, 김행화, 안선희, 조은영, 조형란, 황순녀 (9명)

▣ 등장인물 : 대문1, 대문2, 대문3, 대문4, 할머니, 명식, 언니, 동생, 엄마, 명순, 태은, 래미

▣ 1.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 주소

문지기 노래와 함께 한명씩 들어와 우산을 펴고 자리에 선다. 사람들이 하나씩 우산 안으로 들어가 집을 차지하고 예뻐해 준다.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 주소

열쇠 없어 못 열겠네 (까꿍)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 주소

열쇠 없어 못 열겠네 (까꿍) 반복

어느 대문에 들어를 갈까

도화마을에 들어가지

▣ 2.배웅

다 서면 각자 집들 남생아 놀아라로 색깔로 놀아라로 논다. 각자의 집에서 논다.

종소리가 들리면 모두 멈추고 한 할머니가 등장한다.

대문1 : 할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대문2 : 예궁 이동네 처음생길 때 이사온 할멈이잖어
대문3 : 아이들 출가시키고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 할멈차례네
대문1 : 그러나저러나 아니 정작 올 사람은 안오고 말여 뭐하고 있는거야
대문2 : 그이가 좀 속정이 많아 떠나보내기 서운해서 그러겠지
대문3 : 저기 온다 저기와!

헐레벌떡 들어오는 상중대문,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와 손을 내민다

대문4 : 이거... 가지고 가.
할머니 : 이거 세상에나 이걸 어디서 찾으셨대요?
대문4 : 난 당연히 알고 있지.. 그동안 소중히 다뤄줘서 참 고마웠어
할머니 : (쓰다듬으며) 당연하지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할머니 먼길 떠난다. 대문들은 손을 흔들며 할머니를 배웅한다. 대문4가 앉아서
흠쩍이면 나머지 대문들 다가와 토닥인다

대문1 : 다 그런거야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 지어지는 집이
있으면 허무는 집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1,2년 뒤 면 우리 모두 다
싹~~~~~

대문2 : 참 위로도 고급지게 한다. 그걸 위로라고....

대문1 : 난 그냥

대문3 : 슬프겠지 슬플거야 니가 이동네 처음으로 터 잡고 들어왔잖아. 그러니
더...

대문4 : 맞아 처음 이동네 들어왔을 때 말야 주변이 다 논밭이었잖아 그 땐 참
운치 있었는데....

▣ 3.개골 개골청 < 개구리 소리, 빗소리 >

- '개구리 잡으러 가자' 대사 하면, 개골청 노래

개골 개골청 방죽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팔을 뚝뚝 걷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 흥 어흥어흥 냥 어흥 얼라디어

- 노래 끝난 후 '개구리 잡았다' 하며 쪼그려 앉는 동작. 빗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처마밑에 모여 앉는다. '너는 뭐가 될거야?' 하며 어릴적 꿈 이야기.

언니 : 넌 커서 뭐가 될거야?

명식 : 난 커서 야구선수가 될거야 멋진 투수(돌을 던진다)

쟁그랑 소리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 아이들 '튀어' 소리와 함께 명식 사라지고 아이들은 탈을 내려놓고 짐을 옮긴다

▣ 4.꿈보다 해몽

대문4 : (나이든 아들을 바라보며) 이 집 이사왔을 때 저기 명식이가 10살이었지. 예나 지금이나 출싹대기는 똑같구만.

명식 : 미안 미안 내가 독을 하나 깨먹었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식구들, 서로 장독을 들고 옥신각신이다.마치 서로 가져가려는 듯한 모습이다.

대문3 : 저거 뭐하는 거야?

대문2 : 딱 보면 몰라 저 장독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대문4 : 이 집 주인이 독을 참 아꼈지 아이들이 지 엄마 생각은 꿈쩍이 하긴 해

언니 : 그러니까 이 장독 엄마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던 거였냐구, 내가 김치 냉장고 샀으니 처분하자고 해도 장은 이 장독에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매일 쓸고 닦았지. 울 막내 기막히게 엄마 장맛을 안다고 엄마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셨어 그러니 막내 니가 가져가

동생 : 아냐 언니 난 엄마 쓸고 닦고 한 기억도 잘 안나. 또 장을 어떻게 담는지도 모르는데... 뭐 언니가 딱 책임자지 뭐

언니 : 아냐아냐 요샌 앤틱한게 유행이고 너 집 꾸미는 것도 좋아하잖아 이 장독 완전 코리안 트레디셔널 앤틱이야 그러니 너 가져 내가 양보할게

동생 : 아냐 나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중이야 있는 짐도 정리하고 있는데 뭐

언니 : 요새 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장독이 무슨 필요냐구 너 맨날 엄마장맛

최고야 최고 하면서 장퍼다 먹었잖아

동생 : 언니는 안먹었어? 그럼 그냥 깨서 버려

대문4 : 저것들이 그냥 콧

대문1 : 야 참아 참아 맞는 말이지 뭐 저 장독 가져가서 뭐하겠니? 김치냉장고
가 얼마나 잘나오는데

대문4 : 그래도....저 장독 마련하고 이 집 할매가 참 좋아했는데...

<회상>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가 서로 잡기를 하는데
장독주변이다 실수로 장독뚜껑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만다

언니 : 어?! 어떡해 이 장독 엄마가 매일 쓸고 닦고 엄청 아끼는 큰독인데

동생 : 언니 어떡해(울먹)

엄마 : 어머 이게 뭐야 니들. 이걸 어째?

언니 : 야! 얼렁 튀어.

엄마 : 니들 이리 안와?!

언니와 동생은 뛰다 넘어지고 머리가 깨진다. 엄마랑 모두 놀란다

동생 : ㅎㅎ 언니 그때 언니가 튀라 그래서 뛰다 여기! 여기 찢어져서 흥졌잖아.
이 흥만 아니면 미스코리아 나가는 건데말야.

언니 : 예예 어련하시겠어요. 이 독들을 집에 가져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생전 참 아끼던 물건인데 버리기도 참 걸리고... 나가서 쓰레기 봉투나 사오
자

▣ 5.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대문1 : 으이구 저것들이 할매이 쓸고 닦고 했던 물건들 죄다 버릴 참이네

대문2 : 그럼 이 짐들을 이고 지고 갈것이야 다 버리지

대문3 : 사람들 참 이상해 저 높기만 하고 볼썽없는 아파트가 뭐가 좋다고 다들
아파트 아파트

대문2 왜? 높은데 살면 이렇게 골목골목 답답하지도 않고 좋겠지

대문4 그래 마당 있어봐야 낙엽 떨어지면 청소거리만 많고 우리같은 구옥이야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그런거지

대문1 야야 그런소리 뭐하러 해. 여름 덥고 겨울 추운거야 당연한 거지

대문3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 집들이 없어지는게 하나도 허전하지 않은가. 한 두 집도 아니고 동네가 싹 다 없어지는 건데

대문2 싹 다 없어지고 대신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잖아 집값들도 얼마나 올랐다고. 나도 많이 올랐어

대문들 : 좋기도 허것다. 곧 없어질 집주제에

대문4 : 그래도 이 골목은 우리 할멈처럼 동네 생기고 계속 산 사람들이 꽤 되잖아 아이들도 여기서 낳고 자란아이들이 꽤 될텐데

대문3 : 허전하겠지 지들 낳고 자란곳이 없어진다는데... 우리 집만 해도 그래 사람들이 벌써부터 얼마나 맘 아파 한다고

대문들 : 에이, 설마...

▣ 6. 감나무 집

감나무 아래 열심히 감을 따는 사람들. 딸은 핸드폰을 보고 있다. 감나무 아래 감을 따놓고 닭고 있다

명순 : 이 감따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려나

태은 : 그러게 1,2년안엔 개발 들어가겠지?

명순 : (감나무 만지며)어짜피 내년엔 해갈이해서 감도 안열릴 텐데...

대문3 : 저 봐 저 봐 우리집 사람들은 저렇게 벌써부터 슬퍼한다니까

명순 : (돌변) 진즉 다 베어버릴까 했는데 여름이면 여기서 벌레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태은 : 근데 그 감나무도 보상 받는다면

명순 : 그러니까 그것땀에 बे지도 못하고...

태은 : 그러게 선견지명 있게 우리집처럼 대추나무를 심었어야지.. 근데 이동네 왜 집집마다 감나무야?

명순 : 파란대문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 동네 들어설 때 동에서 감나무를 무료로 나눠 줬다나봐 그래서 이 동네 집들은 다 감나무가 있는거래

태은 : 진짜?

명순 : 믿거나 말거나....얼른 아파트 들어서면 좋겠다 깔끔하게 딸래미 넌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더니 맨 폰만 보고...

래미 : 지금 막 할라 했어 엄마때메 하기 싫어졌어 몰라(들어가 버린다)

명순 : 으이구 딸이 아니라 아주 상전이야 상전

태은 : 다 그래

명순 : 맞다. 참 우리 대추차 끓이고 있었는데

사람들 퇴장한다

▣ 7. 아이는 어른의 스승

대문1 : 떡이나 슬퍼한다

대문3 : 저것들이... 이 집서 산 세월이 얼마데...

대문2 : 아파트가 좋겠지. 깔끔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대문들 : 넌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대문4 : 사람이 낳고 자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은 다 잊었어

대문3 : 아이들 뛰 놀던 이 골목, 담벼락, 옆집이랑 돛자리 펴놓고 앉아서 수박 먹던 기억, 소나기에 니집 내집 가릴거 없이 문열고 들어가 빨래 걸어주던 인심

대문2 : 왜 우리동네도 북적북적 거렸지.. 조 위에 대학교 있었잖아 저녁이면 저 제물포역 근처 포장마차 즐비하게 서서 이집 신랑 저집 신랑 모여모여 술한잔 걸치고 팔라된 대학생 담벼락에 토약질...

대문들 : 에이 정말스럽게...

대문2 : 좋았잖아

대문4 : 우리같이 낳고 늙고 오래된 것들은 사람들한테 그저 불편하고 보기 싫은 거지

대문1 : 지들은 늙고 오래되지 않을 것 같은가? 사람이란게 나이들어서도 힘들고 지칠 때 찾아 갈 곳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대문4 : 할머니 잘 갔어. 이 동네 늙은 노인네들 아파트 들어서면 더 고립되고 더 혼자되는거 아녀

다들 슬프다. 뒤돌아 가려는데 딸래미 나와서 의자에 앉아 폰을 한다 대문 3은 아이에게 다가간다. 머리를 쓰다듬는다

대문3 : 요건 알까? 이제 지 고향같은 동네가 없어지는데... 내 요거 태어날 때

가 생각나.

대문2 : 그래 이 집 시어머니 모시고 산 집이라

대문1 : 맞아 이집 할머니 대문에 금태 들렀었잖어 근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애어른 할거 없이 다 쳐다보고 그랬지

대문4 : 요 똥강아지 크는거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말여

대문3 : 그르게 이 아이 큰 이 골목 이동네 이집이 그리울 날이 있을랑가...

대문2 : 펍도... 몇 십년을 산 어른들도 다 잊었는데

대문3 : 그렇겠지?

이 때 엄마 나온다.

명순 : 딸래미 여기서 뭐해?

래미 : 그냥... 일기 써 엄마, 엄마는 어릴 때 살던 동네 집 기억나?

명순 : 당연하지. 지금 외할머니 사는 집 엄마가 딱 너만할 때부터 산집이야.
참 재밌었는데...

래미 : 나두

명순 : 어? 뭐라구?

래미 : 나두 이집이 참 좋았다구. 동네 아이들이랑 늦은 시간까지 마당에서 놀
던거 감잎따서 그림그린거, 소꿉장난 하던거 옆집 이모네랑 같이 삼겹살 구
워 먹던거 다 좋아

명순 : 어.. 우리 딸 이 집에서 행복한 기억이 많네. 그리고 보니 엄마도 이집에
서 행복한 기억이 많네

래미 : 음 그래서 아까 아파트 이야기하는데 왠지 이 집이 좀 슬플거 같았어

집들 깜짝 놀라 쳐다본다

래미 : 나도 좀 슬프구... 그래서 말인데

엄마랑 딸을 뭔가 쓱닥쓱닥

대문들 궁금해 귀 기울여 들으려 한다

▣ 8. 동네 골목길

명순 : 안녕하세요. 저 노란대문집 래미엄마예요. 오늘 이렇게 동네 분들을 모
시고 상영회를 하게 돼서 기뻐요.

대문1 : 빨리 와

대문2 : 아직 시작 안했어 뭘 그리 서둘러

대문3 : 어서 와 조용히하고 앉아봐

대문4 : 아이고 기대 된다.

명순 : 얼마 있으면 저희 동네는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설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떤분은 아파트 입주를 해서 보게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동네로 떠나는 분도 있겠지요

래미 :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16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없어진다는게 조금 슬퍼요.

명순 :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지요. 특히나 도시는
더더욱. 앞으로도 많이 변하겠지만 저희 여기 우리 딸에게는 고향인 이 동
네를 보존해 주고 싶었어요.

대문3 : 크~~~ 말 잘한다. 우리 집 식구들이 대대로 말을 참 잘해 집터가 좋은
게야

대문4 : 우리 할멈도 오늘을 보고 갔으면 좋았을걸

대문1 : 조 래미 꼬망둥이 맘속엔 우리가 계속 있겠지.

대문2 :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들만은 못하지

래미 : 아파트도 좋죠.. 그래도 이 마을을 꼭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으로 동네를
열심히 담아 봤습니다. 즐겁게 봐 주세요